

인생을 노래하는 ‘반백의 신사들’



양형모의 공소남닷컴
ranbi@donga.com

한국남성합창단 60주년 기념 연주회

직업·나이 다양…순수 아마추어 합창단
정체성·역사·희망을 담아 총15곡 선사
60주년 기념 위촉곡 ‘사해 칸타타’ 선포

무대 위에 부러놓은 거대한 학익진처럼 보였다. 100명(정확히는 98명)의 남자들이 검은 슈트를 차려입고 지휘자를 구심점으로 동글게 늘어섰다. ‘남성’이라는 것 외에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합창단.

한국남성합창단(단장 황영호)이 창단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3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한 이날 정기연주회는 1층부터 3층까지 전석이 찼고, 합창단원들의 뒤통수를 봐야 하는 무대 위 합창석까지 관객들로 메워졌다.

한국남성합창단은 1958년에 창단됐다. 20년째 지휘봉을 잡고 있는 김홍식 상임지휘자는 “우리는 58년 개띠 합창단”이라며 관객을 웃겼다. 이 합창단은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을 표방하며 중후한 화음을 오래도록 맞춰왔다. 단원들의 나이도 직업도 천차만별이다. 최연소 30세(1988년생)부터 최고령 80세(1937년생)까지 연령대가 넓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단원인 경우도 있다.

아마추어 합창단이지만 이들이 한국 음악계에 끼친 선한 영향은 프로 합창단 이상이다. 희귀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를 가득 메운 98명의 한국남성합창단. 창단 60주년을 기념한 이날 연주회에서 중후하고 웅장한 화음으로 관객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사진제공 | 한국남성합창단

남성합창곡들을 수집하고 집대성하는 한편 작곡 위촉 등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인 작품들이 많다.

김홍식 지휘자는 “정기연주회를 하고 나면 우리가 초연한 곡들이 전국의 남성합창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곤 한다”고 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연주도 많았다. 독일합창제 초청으로 참가한 베를린 카라얀홀 연주회가 대표적이다. 1985년부터는 100년 전통을 눈앞에 둔 일본의 ‘도쿄리더타벨1925’ 합창단과 교환방문하며 합동연주를 하고 있다.

이날 연주회는 창단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합창단의 정체성과 역사, 희망을 담은 레퍼토리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총 6개의 스테이지로 나누어 15곡의 합창곡을 선사했다. 1부는 피아노 외에 오보에(고민식), 첼로(조연우)를 곡에 따라 첨가해 합창을 반주했고 2부에서는 모스틀리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무대에 올려 사운드를 확장했다.

반백의 신사들이 부르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양희은 작사·이병우 작곡·박해진 편곡)는

한없이 쓸쓸하면서도 뭐라 표현하기 힘든 온기가 손바닥에 남았다. 이날 초연한 ‘벚노래-자진 벚노래’(경상도 민요·전경숙 편곡)의 독특한 2중 구조는 매우 신선하게 들렸다.

뭐니 뭐니 해도 이날 연주회의 하이라이트는 2부 첫 순서에 배치한 ‘바다 칸타타 사해(四海)’. 60주년을 맞아 작곡가 박지훈에게 위촉한 작품으로 ‘동해’, ‘서해’, ‘남해’, ‘잃어버린 북해’의 4악장 구성이었다. 한국남성합창단은 일출과 파도의 장엄함이 느껴지는 동해, 사랑과 그리움의 서정적인 서해, 다도해를 신비로운 돌무더기로 표현한 남해, 동해를 재소환하며 험한 내일을 노래하는 북해를 마치 거대한 유희를 보듯 생생하게 소리로 펼쳐놓았다.

이날 연주회는 단원들과 관객이 ‘들장미’를 합창하며 막을 내렸다. 종이 위에 잉크를 입히는 볼펜이 아니라, 종이 속으로 스며드는 만년필 같은 ‘60년 화음’을 들을 수 있었던 연주회. 가사 속의 삶을 몸소 살아낸 인생들만이 부를 수 있는 ‘진짜 노래’로 귀 부른 날이었다.

시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갇아주는 법
(김효은 글·강인경 그림 | 청림출판)

제목이 참 긴 책이다. 부제도 있다. ‘핵사이다 〈삼우실〉 인생호신술’. SNS를 뜨겁게 달군 ‘삼우실’이란 웹툰이 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온갖 불편한 상황들에 맞선 사이다 대처법을

알려준다. 웹툰이 업로드되는 날이면 “내 이야기인 줄 알았다”, “오늘도 당한 일이다” 등의 공감 댓글이 끊없이 붙었다. 어느 조직이든 주변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법. 되바라지지 않게, 은근히 갇아주며 자신을 지켜가는 유효한 방법들로 가득하다. 가슴이 뻥 뚫린다.

●카지노 목시록

(김중서 저 | 아북)

1990년대부터 집요하게 도박계의 이면과 폐해, 도박사들의 심리와 생활을 파고들었던 작가 김중서의 본격 카지노 소설이다. 작가가 평생 붙들고



늘어진 이야기의 소재는 ‘베팅’과 ‘승부’다. 이 책은 카지노 도박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껌블러들이 연대해 활로를 모색하는 이색적인 이야기를 다룬다. 현재 프로기사 기억9단, 광고계의 촉망받는 CF감독 천둥, 텍사스 홀덤의 고수 데스페라도. 이들 삼총사의 활약에 작가 특유의 스피디한 필치, 디테일한 묘사가 더해져 독자들이 숨쉬기 벅할 정도로 강력하게 빨아들인다. 등장인물들이 모두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한다는 것도 신선하다.
양형모 기자

에듀윌

수험생을 위한 ‘독한 관리 시스템’

9급 공무원 합격생이 말하는 리얼한 합격의 기술은?

9급 공무원 수험 과정은 치열하다. 올해도 뜨거운 공시 열풍에 2018년 국가직 9급 공채 기준 무려 20만2978명이 시험에 지원했다. 그러나 해당 9급 공채 응시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8만1546명(52.5%)이 과락을 면치 못했다.

그렇다면 실제 합격생이 말하는 합격의 기술은 무엇일까. 여러 학원들은 단기합격 또는 스타강사 등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그러나 합격생들이 말하는 합격의 진짜 기술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숨어 있다.

2017년 공무원 합격생 22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9급 공무원 합격생의 74%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합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기술로 보았다. 여기에 2위는 ‘절대적 학습량’으로 17%를 차지한다.

두 가지 합격의 기술 모두 다른 사람이 대신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기에도 더욱 중요하다. 이에 에듀윌은 수험생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합격의 기술을 시스템화했다.

적게라도 매일 정해진 학습계획을 지키며 공부



그것이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한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 보다 출석 평균 횟수 6.7배, 강의 수강 평균 횟수 5.7배를 나타내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중이다. 여기에 절대 학습량을 지키는 1년 커리큘럼 자동 회독 과정도 에듀윌만의 특화된 학습 시스템이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강주현의 퍼즐월드

(모바일) WWW.경품광고쿠키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4	5				6		1
			4		2		
3			9		6		8
	6	8		4		5	1
			2		1		
	4	9		8		7	6
9			6		5		4
			1		8		
8		6				2	

	9		5			8	6	
7		6		2				3
8			4		6		1	
		2				6		5
	6						4	
9		7				3		
	7		1		9			2
1				6		9		4
	2	9			5		7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정답

9	6	8	7	6	8	9	1	8
9	6	8	8	1	7	2	9	5
7	8	1	9	2	9	7	8	6
2	9	7	8	9	6	7	1	8
6	1	9	6	7	7	2	8	9
8	1	9	6	7	7	2	8	9
2	9	7	8	9	6	7	1	8
1	2	9	7	8	9	6	7	1
9	6	8	7	6	8	9	1	8
7	8	1	9	2	9	7	8	6
2	9	7	8	9	6	7	1	8
6	1	9	6	7	7	2	8	9
8	1	9	6	7	7	2	8	9
2	9	7	8	9	6	7	1	8
1	2	9	7	8	9	6	7	1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1월 16(금)·17(토)·18(일)

	쥬 행운색 금: 흰색 토: 흰색 일: 흰색	☞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 여유를 필요로 한다. 현재는 고독하나 어느 날 갑자기 뜬다. 길방: 서 ☞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발길. 운세: 윤기가 바뀌는 기운이다. 그러나 개혁신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렵다. 신념을 끝까지 지켜라. 길방: 서 ☞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만족. 운세: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길방: 서
	소 행운색 금: 적색 토: 흰색 일: 적색	☞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금전적인 이득과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라. 방해물이 없다. 길방: 남 ☞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길방: 서 ☞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발길. 운세: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맥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금: 적색 토: 적색 일: 검정	☞ 오늘의 마음:여름, 일출 직전. 운세: 밭길에 밭일이 나타난 적이다. 금전의 융통이나 어려움의 해결은 용피가 귀인이다. 길방: 남 ☞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손톱에 못을 달고 나아가는 기운이다. 불운을 만회하고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길방: 남 ☞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자신감이 증대하여 실수하기 좋은 날이다. 신중한 자세만이 앞날을 밝게 할 것이다.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금: 검정 토: 적색 일: 적색	☞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찰하라.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새로운 계기를 찾는 때다. 길방: 북 ☞ 오늘의 마음:여름, 일출 직전. 운세: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가능한 한 번 거리가 좋다. 승진이 예상된다. 길방: 남 ☞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주변의 도움으로 유리한 거래가 성사되며 수입이 증대된다. 직장인은 승진의 운이다. 길방: 남
	웅 행운색 금: 적색 토: 흰색 일: 적색	☞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타의 시선이나 관심에 개의치 않는 날이다. 길방: 남 ☞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 따른다. 문서상 신중을 기하여 행동에 옮겨야 한다. 길방: 서 ☞ 오늘의 마음:여름, 일출 직전. 운세: 감정 제어가 잘 되지 않는다. 매사 일회일비 하되반면 손해볼 볼 수 있다. 집착하라. 길방: 남
	뱀 행운색 금: 노랑 토: 청색 일: 청색	☞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손을 안대도 될 것을 자꾸 건드리고 싶다. 변화를 시도하려면 신중하고, 문제를 거듭하라. 길방: 중앙 ☞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하다. 운세: 운이 막혔으니 큰 것은 바라지 말라. 오늘은 파견근무의 결과가 좋아 집금과 연결된다. 길방: 동 ☞ 오늘의 마음:신기루, 공상 많다. 운세: 오늘은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괜히 욕하며 성질부린다 자신만 상처입는 날이다. 길방: 동
	말 행운색 금: 청색 토: 노랑 일: 청색	☞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모든 일에 도를 지나쳐서 관세, 송사와 연결될 수 있다. 비밀노출이고 싸움으로도 해석된다. 길방: 동 ☞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이다. 병이나 화는 입을 통해 들어온다. 구설수나 소 화불량에 주의하라. 길방: 중앙 ☞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인맥을 연마하며 힘든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길방: 동
	양 행운색 금: 적색 토: 흰색 일: 흰색	☞ 오늘의 마음:싸움, 소심한 날. 운세: 신경이 예민해지는 날이다. 경계망을 삼가야 한다. 경솔히 나아가면 난관에 부딪친다. 길방: 남 ☞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날이다. 영입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조성되는 날이다. 길방: 서 ☞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마음을 다잡고 겸소한 생활을 하라.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금: 검정 토: 검정 일: 검정	☞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경련이 탁월하여 자신의 재능 분야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단,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길방: 북 ☞ 오늘의 마음:싸움, 소심한 날. 운세: 타성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이때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라. 길방: 북 ☞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다소 소극적이며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실패할 것이다. 대인관계에 힘을 써야 하겠다. 길방: 북
	닭 행운색 금: 검정 토: 검정 일: 검정	☞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마음은 있어도 몸이 따르지 않는다. 고집을 좀 꺾고 취직 시 북서쪽으로 머리를 향하라. 길방: 북 ☞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소는 소극적 기운이며, 뱀은 활동적 기운이다.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길방: 북 ☞ 오늘의 마음:싸움, 소심한 날. 운세: 마음은 좀 쓸쓸하지만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건실하게 자신있게 나아가라. 길방: 북
	개 행운색 금: 적색 토: 흰색 일: 적색	☞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정신적 혼란으로 실수를 자주 할 수 있는 날이다.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라. 길방: 남 ☞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자칫 망언이나 희롱이 될 수 있어 일만 커지게 된다. 길방: 서 ☞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때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 투자자의 거래 성사가 있는 날이다. 길방: 남
	돼지 행운색 금: 흰색 토: 흰색 일: 흰색	☞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발길. 운세: 예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아라. 느긋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길방: 서 ☞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욕구분출, 잠재력발휘의 날이고, 건강과 금전에 대한 번동이 이루어진다. 판단력이 뛰어나다. 길방: 서 ☞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갑니다. 이득 없는 일도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길방: 서
	재운 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4,7,9,1(6) 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입 행운의 띠: 소,뱀,닭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호랑이,말,개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